

호남 광역단체장 정국현안 3인3색...오늘 연석회의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박준영 민주당 반대에 비판적
강운태 보완책 마련, 합의 처리를
김완주 원칙적으로 반대

■ 아권 통합

박준영 몇 사람이 결정해선 안돼
강운태 원론 동의... 당 정체성 담아야
김완주 적극 찬성 입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아권 통합 등 민감한 정국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 21일 민주당 최고위원-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 호남 광역단체장들이 정국 현안에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SD) 재협상 합의서'를 조건으로 내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론에 대해 호남 광역단체장들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박 지사는 비판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박 지사는 한미 FTA 발효에 대비,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요청과 함께 "한미 FTA는 참여정부 때 발의해 시작됐음에도 민주당은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시장은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통해 내년 1월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하며 중도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당론에 비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송 시장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한미 FTA 독소조항을) 그때

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FTA를 안하러고 조건을 거는 방식은 안 된다"고 밝혔으며 안 지사도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기가 추진했던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른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권 통합 문제에서도 호남 광역단체장들의 입장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최근 통합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역사적인 당인데, 지도부 몇 사람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강 시장은 원칙적으로 통합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민주당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는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각종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사이에 상당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최근의 정국 현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며 "정국 현안을 보는 시각에 따라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피해자·재학생 상처 치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화학교 도가니 사태 일단락... 남은 과제는

귀속재산 57억 교육청 지원센터 활용
사회적 약자위한 관련법 개정 이뤄져야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한 지 6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인화학교 운영법인이 광주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인 허가 취소 배경=광주시는 18일 영화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2005년 6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성폭력 피해 사건이 접수된 후 6년5개월만이다.

이에 앞서 법인은 "법인의 모든 재산을 카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 하겠다는"는 의사를 밝혔었다. 시는 이를 놓고 며칠 고민을 했지만, 결국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이는 광주시가 만약 카톨릭 재산 증여에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법인 운영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비난의 화살을 감당해야하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화학교 성폭력 특별수사팀'이 지난 18일 광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지난 9월29일 이후 51일간 진행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름지 않은 상처=법인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인화학교 문제는 의견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는 물론 행정·교육 당국,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피해자와 재학생들의 상처도 '진행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의 주선을 통해 연세대 의대 신진경 지도 점검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우석법인 소유한 재산은 인화학교와 인화원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 등 57억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시교육청은 이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장애인 인권교육 등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사후 인화학교 활용계획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년 2월부터 또 다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2013년 개교 예정인 공립 특수학교 '신우학교'에 배정될 예정이어서 이 기간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남은 과제=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도입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위탁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광주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개정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앞으로 사회복지사회법을 개정하고 광주시도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밖에 시장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 등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우석법인(인화학교) 해산·청산 절차

법인허가 취소 통지 시→법인, 법원

이사해임 및 청산인 선임청구 협조 (시→법인)

청산인 선임(직권, 법원) -취임 후 3주내 시에 신고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청산인) -청산인 취임후 3주내 해산등기 (해산사유, 연월일, 청산인 등) -등기 후 7일내 시에 신고

채권신고의 공고 및 채무변제 -취임 2월내 3회이상 공고(2월이상)

잔여재산 귀속(청산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청산인) -청산 종결후 3주내 등기, 신고

해산·청산의 검사, 감독(법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서둘러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김용목 상임대표

“어찌된 당연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긴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피해학생들 치료와 보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인화대책위) 상임대표(사진)는 지난 18일 광주시가 인화학교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하자 “이번 결정이 민간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는 방향 전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당초 계획했던 세 가

지 목표 가운데 인화학교 학생들의 정상교육 문제와 우석법인의 책임을 피해학생들 치료와 보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 상임대표는 “사회복지사업법은 21~24일 사이에 큰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야가 일정한 수준에서 합의된 만큼 공익이사제 도입 등 시급한 현안이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며 “신 의진 교수 등과 함께 피해학생들의 트라우마 치료와 재할업교육을 위



21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관천동 버스터미널 유스퀘어광장 천막농성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및 우석법인 인가 취소에 따른 천막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해 노력하고, 민변과 이명숙 변호사 등과 힘을 보태 소송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빛의만평

- 김중두



차라리 이게 낫지않을까 싶다

한국후지제록스(주) www.fujixerox.co.kr. 11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FUJI XEROX. 11년 연속 복사기 부문 고객만족도 1위 기념 고객감동 이벤트. 이벤트 내용: 행사 기간 내에 대상 기종 구매 고객 (현 사용 기종 반납 조건). 구매고객은 Fax Kit 무상제공 (고객으로부터 Fax Kit 무상설치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이벤트 기간: 2011년 10월 ~ 12월 (3개월). 대상 기종: DocuCentre-IV 2060CP, DocuCentre-IV 3060CP, DocuCentre-IV 3065CP, DocuCentre-IV C2260CPS.